

한국 의학 문헌의 서지활동(색인·초록)의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Current Conditions of the Bibliographic Control(Indexing and Abstracting) for the Medical Literature in Korea

윤 영 대 (Yung-Dai Yoon)**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한국 의학 잡지 기사 색인·초록의
체제 및 내용분석 |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IV. 한국 의학 서지 작성의 문제점 |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V. 제안 및 결론 |
| 3. 선행연구 | |
| II. 한국 의학 잡지에 대한 색인·초록
작성의 현황 | |

초 록

해방 이후 국내 학술 논문이 점차 증가하여 현재는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서지 작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국내 의학 잡지가 외국의 중요한 색인·초록지에 거의 수록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의 이용과 외국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도 우리 자신이 국내에서 한국의 의학 논문의 서지류의 생산이 절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많은 의학 문헌의 서지류가 발행되어 왔다. 그 현황을 조사하고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의학 문헌 서지류 작성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Because most of the medical literatures published in Korea are not listed on the foreign famous index or abstracts journals, it is necessary to index and abstract them domestically. Increasing number of medical literatures makes one fail to refer to informations needed without any secondary materials. Recently, many indexes and abstracts of medical literatures are published, but there are no tertiary lists. Because of that fact, it is difficult to know the status quo of the bibliographic works for the medical literatures in Korea. In this research, status quo of indexing or abstracting of articles in domestic medical journals were investigated and systems or contents of the indexing and abstracting in Korea were analyzed to suggest the standards of bibliographic control.

* 이 논문은 1999년도 상명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연구비에 의한 논문임

**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 교수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색인의 목적은 필요한 정보를 쉽게 검색하기 위한 것이다. 랑카스터 (Lancaster)¹⁾는 색인 및 초록 작성의 주 목적은 데이터 베이스에 수록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출판물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문헌 양이 많지 않다면 색인의 필요성은 없을 것이다. 신문학이 비교적 늦게 우리나라에 들어 왔고 특히 해방 이후의 문헌 양은 매우 적었고 우리 나라 논문의 인용도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²⁾ 색인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71년까지의 의학·약학 논문을 모아 단행본으로 출판한 국회 도서관의 '의학·약학 논문 총 목록'이 우리나라에서의 의학 분야의 첫 서지류로 역사적 의의는 있으나 의과대학의 교과과정에 따른 대주제로 분류하여 검색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문 디소러스의 도입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필자(윤영대)가 미국 의학 도서관에서 Index Medicus를 위해 개발하여 약 1세기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MeSH(Medical Subject Headings)를 이용하여 국내 처음으로 Index Medicus Korea와 학술원의 학술총람 의학편의 초록집을 편집 한 것이 효시가 되어 국내에서도 현재는 MeSH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MeSH는 당시 The Library of the Surgeon General's Office에서 1889년에 창간된 Index Medicus(old series)와 1890년에 창간된 Index Catalogue of the Library of the Surgeon General's Office를 색인하기 위하여 개발되기 시작한 디소러스로서 1960년 Index Medicus(new series)를 새로 발행하기 시작하면서 대폭 보완하였고 매년 1년에 한번씩 위원회에서 용어들을 조정하고 개정하여 발행되고 있다.³⁾

70년대 초에 우리 나라 의학 잡지는 50여 종에 불과 하였으나 현재는 약 4배 이상이 증가하여 약 200여종에 달하고 있으며 학회지 들도 창간 당시 년간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격월간 내지 월간 잡지도 크게 확대되어 따라서 여기에 수록, 발표되는 논문의 양도 크게 증가하여 왔다.

따라서 2차 자료가 없이는 필요한 문헌을 검색하기가 어려운 정도가 되었다.

최근에 와서는 각 학회별로 자기들의 주제분야에 대한 서지류가 학회지에 그 동안 발표된

1) F. W. Lancaster, 『Indexing and Abstracting in Theory and Practice』, 2nd ed., 장혜란역, 『색인 초록의 이론과 실제』, 구미무역 출판부, 1999, P.13.

2) 김호배, 윤봉자, "국내 의학 문헌 색인의 현황 및 발전 방향", 《한국의학 도서관》, 25(2), 1998, P.21.

3) Medical Library Association, 『Handbook of Medical Practice』, 4th ed. vol 3, 1988, P.144.

논문들을 색인 하여 발행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그 만큼 정보량이 많이 축적되어 2차 자료가 없이는 필요한 논문의 검색이 불가능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특히, 우라 나라 잡지들은 불행히도 아직 외국의 유명 2차 자료에 수록대상이 되는 것이 매우 적은 실태이다.

Index Medicus는 오랫동안 Yonsei Medical Journal 한 종만이 수록되다가 최근에 몇 종이 추가 되어 9종이 수록되고 있으며 Excerpta Medica의 데이터 베이스인 EMBASE에 수록되는 국내 의학 잡지도 10종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내 의학 문헌을 검색하고 외국에 우리의 문헌을 소개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의학 문헌에 대한 서지류를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외국에도 널리 배포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계속되는 의학잡지에 대한 현간 서지는 모두 중단되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색인·초록지는 KINTI의 Korean Medical Abstracts 1종 밖에 없는 형편이다. 더욱이 초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색인은 필요할 때 검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바 색인·초록집을 생산한다 하여도 검색 효율이 저조한 것이라면 시간적, 금전적인 낭비에 불과한 작업이 될 것이다.

국내에서 최근 지난 과거 서지들이 많이 출판되어 왔으나 이들이 검색 효율 면에서 과연 효과적인가를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개선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 기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국가 서지의 작성 책임을 지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국내문헌의 색인 작업이 부진함은 물론 어떤 색인·초록이 생산되어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 서지의 서지(즉 3차 자료)도 제작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문헌정보학 교육에 있어 주제별 서지 교육에서 교육할 수 있는 국내 자료도 조사 연구된 바가 아직 없는 형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국내 의학 분야의 색인·초록 작업을 확인, 조사하여 의학 삼차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고 둘째 현재까지 색인된 색인·초록집들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체제로 작성이 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앞으로 좀 더 완전한 2차 자료의 작성에 도움을 주는 데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국립중앙 도서관이나 국회 도서관에 색인·초록에 대한 삼차자료(서지류의 목록)가 작성된 것이 없어 국내의 색인·초록집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방법으로서 서울 내의 중요한 의과대학 도서관과 산업 기술 정보원과 의학 협회 등을 현지 방문하여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의학 분야 색인·초록집을 과거 서지 이거나 현재 서지 이거나 폐간된 것이거나 모든 의학 서지류를 확인하고 조사하여 종류별로 목록을 작성하였으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1권 제 1호)

며 모든 의학 서지류의 체제와 내용을 분석하여 장·단점을 가려내어 앞으로 의학 색인·초록집 작성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 범위에서 의학은 물론 간호학과 치과학, 보건학을 포함하였으나 약학과 한의학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선행연구

국내에서 아직까지 색인·초록 봉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없었으며 특히 의학 분야의 초록·색인에 대한 서지적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다만 김호배, 윤봉자⁴⁾의 논문에서 국내의 의학 색인·초록집 중 대표적인 몇 가지와 외국의 중요한 서지류와의 체제 및 내용을 비교하고 2차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한 논문이 있을 뿐이다.

국내 의학 분야 색인·초록을 완전히 현황을 파악하고 삼차 자료를 작성하고 모든 서지류의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서지 작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논문은 없었다.

Ⅱ. 한국 의학 잡지에 대한 색인·초록 작성의 현황

국내에서 현재까지 출판된 의학 잡지기사에 대한 색인·초록집을 종류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 자료의 상세한 서지 사항은 III장에서 기술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표제만으로 목록한다.

1. 의학 종합 서지

1) 색인

4) 김호배·윤봉자, 전게서

- (1) 의학·약학 논문 총 목록
- (2) Index Medicus Korea
- (3) Korean Index Medicus

2) 초록

- (1) Korean Medical Abstracts (KOMAB)
- (2) Medical Abstracts Korea
- (3) 學術總覽 - 醫學編

2. 의학 소 주제별 서지(색인)

- (1) 한국간호관계 논문 총목록 제1, 2, 3집
- (2) 신장학 분야 논문집 저자 및 주제 색인 제1집
- (3) 소화기 내시경 논문 색인집
- (4) 감염병 논문 색인집

3. 의학분야 학회지 총 색인

- (1) 대한 내과 학회지 색인집
- (2) 대한 방사선 학회지 색인집
- (3) 대한 비뇨기과 학회지 총 색인
- (4) 대한 성형외과 학회지 총 색인 제1집
- (5) 대한 안과 학회 잡지 총 색인
- (6) 대한 이비인후과 학회지 논문 목록 제1,2,3집
- (7) 대한 정형외과 학회지 찾아보기(Index) 제1,2,3집
- (8) 대한 흉부외과 학회지 논문 색인집
- (9) 소아과 총 색인 제1~5집

4. 학위 논문 색인·초록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1권 제 1호)

(1) 학위 논문 초록집 - 연세대학교 보건 대학원

과거 10년간 수여된 보건학 박사 학위 논문 213명분의 초록집 1987

(2) 서울대학교 보건 대학원 학위 논문 초록집 - 서울대학교 보건 대학원

1960년부터 1996년까지 석사 학위 논문(872편), 박사 학위 논문(78편)을 초록함, 1996.

(3) 연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요약집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계 : 의학, 간호학, 보건학, 치의학 분야 1959년부터 1987년까지 수여된 박사 학위 논문의 요약집으로 학위 수여 번호순으로 배열, 1,500여 편, 1988, 인명 색인이 있다.

(4) 대학원 학위 논문 초록집(의학계) -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5년부터 1995년까지의 박사 학위와 석사 학위 논문의 초록집. 학위수여 번호 색인이 있다.

(5) 간호학 및 간호학 관련 석사 학위 및 박사 학위 논문 목록집 - 현문사

1961년부터 1991년까지 간호학 학위 논문의 목록집, 2,377편을 대상으로 1991년에 발행되었다.

Ⅲ. 한국 의학잡지 기사 색인·초록의 체제 및 내용 분석

종류별 의학 서지류의 체제와 내용을 분석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1. 의학 종합서지

1) 색인

(1) 의학·약학논문 총목록

국내 의학 주제 서지로는 최초의 것으로 의미가 크다. 그것은 국회 도서관과 한국 도서관 협회에서 발행한 종합 서지에서 의학과 약학분야 논문만을 별도로 재편집하여 색인한 것이다.

발행처 : 대한민국 국회 도서관

서지 종류 : 과거 서지, 색인

창간 및 발행일 : 1972년

수록 범위 : 국회 도서관, 국내 간행물 기사 색인 1945년 ~ 1959년

도서관협회, 학술잡지 색인 1960년 ~ 1962년

국회도서관, 국내 간행물 기사 색인 1963년 ~ 1968년

국회도서관, 정기간행물 기사 색인 1969년 ~ 1971년

해방이후 1971년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축차 간행물 약 500여 종에서 의학과 약학에 관한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주제범위에서는 의학·약학외에 식품 위생, 영양학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분 류 : 국회 도서관의 정기 간행물 기사 색인을 위하여 작성된 분류체계에 의하며 총34개 주제로 나누어지고 주제 내에서는 저자명 순으로 배열하였다. 주제번호 8번 간호학, 24번 치과학이 포함되어 있고 식품위생은 29번, 영양학 30번, 32번이 한의학, 34번이 약학으로 구분되어 있다. 8, 24, 29, 30, 33, 34번을 제외하고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큰 주제별로 분류되어 있다. 분류 항목이 의과 대학의 교과 과정에 준 하는 큰 주제로만 (예, 외과, 내과, 소아과) 되어 있어 거의 분류한 의의가 없기 때문에 검색이 매우 힘든 것이 흠이다.

색인 및 부록 :

- ① 의학박사 학위 논문 목록 1945년 ~ 1971년
- ② 약학박사 학위 논문 목록 1945년 ~ 1971년
- ③ 저자 색인
- ④ 수록 잡지명 일람

(2) Index Medicus Korea

발 행 처 : 한국 의과학 연구소 (당시 필동 성심병원 내에 설치되어 있던 연구소가 그 병원이 중앙의대 소속이 되면서 한강 성심병원으로 이전되어 운영되었다.)

서지종류 : 현간 서지(반년간), 색인(영문판)

창간 및 발행일 : 1970년 1월 ~ 1972년 12월 Cumulative Index, 1975년

1973년 1월 ~ 6월, 7월~12월(Vol. 1 / No. 1, 2), 1973년

1974년 1월 ~12월(Vol. 2 / No. 1, 2합병호), 1976년

수록범위 : 당시 국내에서 발행되는 의학 잡지 중 학술지 성격의 모든 잡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당시에는 50여 종에 불과 하였다. 의학 외에는 간호학과 치과학을 포함하는 것으로 주제 설정이 되었으나 당시에 간호학 분야는 학술지라 할 수 있는 잡지가 없었고 다만 치과학 분야의 대한치과협회잡지가 포함되었다. 이는 당시만 하여도 세계적인 의학 색인지인 Index Medicus에 한국 의학 잡지가 거의 포함되지 못하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1권 제 1호)

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국내 의학 잡지의 2차 자료를 생산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어 창간하게 되었고 이를 미국에서도 총판을 두어 판매하였으나 경제성이 없고 당시의 국내 의학 문헌 양이 많지 않아 2차 자료의 필요성이 크게 인정되지 못한 실정으로 계속 투자할 가치가 없다 하여 중단하게 되었다.

분류방법 : MeSH(Medical Subject Headings)에 의하여 분류하였다.

MeSH는 현 미국 국립 의학도서관(Medical Library of Medicine)에서 Index Catalogue of the Library of the Surgeon General's Office 와 1960년부터 시작된 Index Medicus를 위한 디소러스로 개발이 되어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매년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정 보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어 의학 도서관에서는 MEDLINE 검색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의학 잡지 기사 색인이나 의학 비책자 자료의 분류와 서가 목록중 주제 목록을 위한 주제명 표목표로서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MeSH의 Main Heading만을 적용하였고 Subheading을 적용하지 않았다.

보조색인 : 인명 색인

평가 : 국내에서도 지금은 의학 문헌 색인의 분류 수단으로 MeSH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아직도 국내에서 이를 완전히 이해하고 사용 할 수 있는 사서가 드문 실정이다.

Index Medicus에서는 한 기사에 대해 최다 35개의 MeSH Term을 부여하는 것에 비하여 Index Medicus Korea는 평균 2개 정도를 부여하였고 내용보다는 표제에서만 키워드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정확률은 높겠으나 재현률은 매우 낮을 것이다.

당시만 하여도 국내 의학 학술잡지가 그리 많지 않아 2차 자료의 필요성을 전문가나 도서관에서 크게 느끼지 못하여 호응이 적어 1970년부터 1974년까지 5년 분을 출판하고 폐간되고 말았다.

문헌 수가 적은 시대였기 때문에 Subheading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몇 십년분이 누가 될 경우에는 잘못된 것으로 평가 될 것이다.

(3) Korean Index Medicus

발행처 : 한국 의학 도서관 협의회

서지종류 : 현간 서지(년간), 색인(영문판)

창간 및 발행일 : 1984년

수록범위 : 의학과 치과학 및 간호학 분야 국내 학술 잡지

1982 ~ 1983, 92종, 1984

1984 ~ 1985, 107종, 1986

1986, 115종, 1987

1987, 121종, 1988

1988,	127종, 1989	1989,	138종, 1990
1990,	146종, 1991	1991 ~ 1992,	160종, 1993
1993,	181종, 1994		

잡지 종 수는 Index Medicus Korea를 창간한 1973년에 대상잡지가 50종 이었던 때에 비하여 1993년에는 181종으로 20년만에 4배에 가까운 신장률을 나타낼 정도로 국내 의학 잡지도 많이 증가하였다.

1993년 판에는 의학 외에 치과학 11종, 간호학 7종이 포함되어 있다.

1993년 판으로 인쇄판은 중지하고 (주)영실 System이 개발한 자동색인 및 검색 System을 이용하여 CD-ROM으로 제작하였다. CD-ROM은 1991년부터 1998년까지 내용을 'Korea Index Medicus 98'이란 표제로 1장의 CD-ROM으로 제작하였고 1994년부터는 초록까지를 포함하였다. 현재는 Internet 상에서 (주)영실 System의 Website(<http://www.youngsill.com:1>)로 접속하여 '의학정보 서비스'하에서 검색을 할 수 있다.

그 이후 CD-ROM 또한 제작이 정지 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도 국내 의학문헌 양이 크게 많지 않고 연구자들의 정보가 거의 외국 문헌에 의존하는 탓에 국내 의학 문헌에 대한 검색이 크게 중요시되지 않으며 정보량이 크게 많지 않아 고가의 2차 자료의 이용이 크지 못한 실정이며 국내 시장이 협소하여 상업성이 없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분류방법 : MeSH에 의하여 분류되며 범례에서는 Main Heading과 필요한 경우 Subheading을 주었다 하였으나 여기에서도 역시 Subheading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색 인 : 저자명 색인

평 가 : 학술 총람 의학편의 발행이 중단되어 의학문헌 서지가 계속 될 필요성에 의하여 창간하게 되었다. Index Medicus Korea와 같이 MeSH에 의하여 색인하고 검색하기 때문에 편리는 하지만 역시 키워드를 1,2개 정도만을 주었기 때문에 여전히 검색율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역시 Subheading을 적용하지 않아 몇 십년 이상의 기간을 누가 판으로 작성 될 때에는 한 주제에 포함된 문헌 수가 너무 많아 검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2) 초록

(1) Korean Medical Abstracts (KOMAB)

발 행 처 : 산업기술 정보원 (KINITI : Korean Institute of Industry and Technology Information)

1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1권 제 1호)

서지종류 : 현간 서지(계간), 영문 초록지

창간년도 : 1971년 ~

수록범위 : 국내 의학 잡지 중 선정된 잡지에서 중요한 논문을 선별하여 영문으로 서지 사항과 초록을 주고 있다. 이는 외국과의 자료 교환용으로 배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상당히 선택적이라 할 수 있다. 80여 종의 의학 잡지 중에서 선택하며 한호에 약 200여 건이 수록된다.

분 류 : 예방의학(Preventive Medicine)을 제외하고는 기초의학을 배제하고 임상의학만을 대상으로 하며 22개 분야의 대분류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검색에는 불편하다.

분류항목 : Preventive Medicine, Clinical Medicine in General, Therapeutics, Radiology, Anesthesiology, Internal Medicine, Surgery, Orthopaedics, Pediatrics, Infectious & Parasitic Diseases, Immunologic & Allergic Disease, Metabolic & Nutritional Diseases, Dermatology, Clinical Medicine on Digestive System, Clinical Medicine on Cardiovascular System, Clinical Medicine on Blood System, Clinical Medicine on Endocrine System, Clinical Medicine on Urogenital System, Ophthalmology, Otorhinolaryngology, Neurology & Psychiatry, Gynecology & Obstetrics.

색 인 : 주제 색인

평 가 : 이는 외국과 자료 교환을 목적으로 하고 외국에 국내 의학 문헌을 소개하기 위하여 영문으로 초록을 작성하여 계간으로 발행 하나 국내에는 거의 배포되지 않으며 상당히 선택적 이어서 망라성은 없다. 이도 역시 너무 큰 주제로만 분류하여 검색이 어렵다.

(2) Medical Abstracts Korea

발 행 처 : 대한 의학 협회

서지종류 : 현간 서지(년간), 영문 초록지

창간년도 : 1974년에 창간하여 년간으로 계속 되다가 1989, 1990년에 Vol. 16,17 합병호로 출판하고 폐간되었다.

수록범위 : 국내 의학 잡지 67종(1987년, Vol. 14)을 대상으로 하여 이 중에서 중요한 논문을 선택적으로 수록하며 Korean Medical Abstracts와 같이 해외에 우리 의학문헌을 소개할 목적과 자료 교환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영문으로 제작되었던 초록지였으나 현재는 폐간되었다. 역시 선택적이다. 순수한 의학만을 대상으로 하고 치과학, 간호학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한 호당 평균 300~400 편이 수록되었다.

분류방법 : 각 논문은 고유의 코드 번호를 주고 그 코드 번호순으로 배열한다.

코드번호는 3개의 단위(논문의 일련 번호 + 해당 주제번호 + 그 논문의 출판 년도)로 되어 있다. 초록 일련번호는 주제가 바뀔 때마다 001번부터 다시 시작 한다.

예를 들어 1985년에 출판된 해부학 논문으로 초록 번호가 1번인 초록은 '001-101- 85'가 그 논문의 코드번호가 된다. 주제가 바뀌면 001-102-85가 된다.

주제번호는 다음과 같다.

Anatomy 101, Physiology 102, Biochemistry 103, Pathologybiology 105, Pharmacology 106, Parasitology 107, Preventive Medicine 108, Medical History 109, Immunology 113, Legal Medicine 114, Internal Medicine 201, Pediatrics 202, Neuropsychiatry 203, Dermatology 204, General surgery 205, Orthopedics 206, Thoracic Surgery 207, Neurosurgery 208, Plastic Surgery 209, Obstetrics and Gynecology 211, ENT 212, Ophthalmology 213, Urology 214, Radiology 215, Anesthesiology 216, Clinical Pathology 217, Rehabilitaion 218 (총28개 분야)

기초 의학은 100 단위이며 임상 의학은 200 단위로 구분하고 있다.

보조 색인 및 부록 ① Subject Index, 주제와 해당 초록번호로 연결

② Author Index, 저자와 해당 초록번호로 연결

③ List of Periodicals Referred (Abbreviation is parantheses)

평가 : 큰 주제별로 배열하는 것은 의학·약학 논문 총 목록(국회도서관)과 같으나 주제 색인을 주어 검색을 보완하고 있다.

이 주제 색인의 주제어들은 논문의 표제에서 추출하며 미리 작성된 디소러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제어의 통일성이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 흠이다.

그러므로 우선 큰 주제어로 분류를 하고 주제 색인에서 다시 소 주제어로 분류하는 이중적 작업을 하고 있어 불필요한 작업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3) 學術總覽-醫學編

발행처 : 대한민국 학술원

서지종류 : 과거 서지, 초록

발행일 : 국내에서 발행되는 의학 분야 축차 간행물 중 학술지로 평가되는 잡지 및 논문집 74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발행되었다.

학술 총람 제20집, 의학편 I, 1977년 ~ 1979년, 6,546편, 1981년

학술 총람 제23집, 의학편 II, 1975년 ~ 1976년, 3,725편, 1983년

학술 총람 제24집, 의학편 III, 1973년 ~ 1974년, 4,048편, 1983년

학술 총람 제26집, 의학편 IV, 1971년 ~ 1972년, 3,279편, 1983년

1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1권 제 1호)

학술 총람 제27집, 의학편 V, 1969년 ~ 1970년, 2,854편, 1983년	
학술 총람 제29집, 의학편 VI, 1980년 ~ 1981년,	1984년
학술 총람 제30집, 의학편 VII, 1965년 ~ 1968년,	1985년
학술 총람 제35집, 의학편 VIII, 1945년 ~ 1964년,	1987년
학술 총람 제38집, 의학편 IX, 1951년 ~ 1944년,	1988년
학술 총람 제39집, 의학편 X, 1982년,	1988년
학술 총람 제43집, 의학편 XI, 1983년,	2,776편, 1990년
학술 총람 제46집, 의학편 XI, 1984년,	1991년

수록범위 : 학술 총람은 학술원에서 문교부(현 교육부) 학술 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신학문이 우리 나라에 도입된 이후부터 현재(1901년부터 현재)까지의 연구 업적을 초록화 한다는 계획으로 전 학문 분야를 50개 이상의 분야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초록집을 발간하던 중 의학편의 발행을 계획하는 데 필자가 관여하고 의학편 I ~ V편까지의 분류 및 편집을 직접 담당하게 되었고 분류 체계는 MeSH로 결정하였다.

처음 시작은 최신의 자료가 더욱 중요함으로 1901년부터 시작하지 않고 계획 시점이었던 1979년부터 소급하여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하여 시작을 하였다. 첫 목 표인 1901년까지 소급 발행을 학술 총람 제9집으로 마감하고 처음 시작한 1980년부터 1984년까지 현간 서지를 출판하고 예산의 제약으로 중단되었다.

보통 의학 서지에는 치과학과 간호학을 포함하는 것이 대체적인 상례이나 학술 총람에서는 이들 주제들도 별도로 하나의 발행될 주제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순수한 의학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발행된 기간 동안은 대상 잡지에 수록된 모든 논문들이 거의 망라적으로 수록되어있다.

분류방법 : MeSH에 의하여 분류하고 MeSH 주제명 순서에 의하여 배열하였다. Main Heading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Main Heading에 , 로 Subheading을 연결 하여 키워드로 사용하였다.

보조색인 : 인명 색인이 있다.

평 가 : 해방 이후부터 1971년까지를 수록한 국회 도서관의 의학·약학 논문 총목록에 이어 1984년까지의 의학 문헌 검색 도구로서 상당히 망라적인 자료로 매우 가치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MeSH에 의하여 분류·색인되어 검색률이 향상되었으나 MeSH Term을 1~3개 정도만 주어 검색률은 매우 낮으나 정확률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산의 배정에 따라 타 분야와 병행하여 발행하였기 때문에 학술 총람 총서번호와 의학편 번호가 순서대로 매겨지지 못한 것이 흠이다.

2. 의학 소 주제별 서지(색인)

1) 한국 간호 관계 논문 총목록

발행처 : 대한 간호 협회

서지종류 : 과거 서지

발행년도 : 1집 1976년, 2집 1984년, 3집 1990년에 각각 발행

수록범위 : 1집은 1960년부터 1975년 9월까지, 2집은 1975년 10월부터 1983년 10월까지, 1983년 10월부터 1989년 6월까지 우리 나라에서 발행된 의료, 보건 관계 잡지, 일반 여성지, 간호대학 및 의과대학 논문집, 간호대학 교지등에서 간호학의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간호학 논문들을 수록하였다.

분류방법 : 저자의 '자모순과 표제의 자모순 목록'으로 배열되었다.

색 인 : ① 저자별 가나다순

② 논제별 가나다순

평 가 : 저자나 논제의 가나다순 색인은 알고 있는 특정 저자의 논문을 찾거나 논문 표제를 알고 특정 논문을 찾기 위한 것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 거의 색인으로서는 기능 면에서 가치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2) 신장학 분야 논문집 저자 및 주제 색인 제1집

발행처 : 대한 신장 학회

서지종류 : 과거 서지, 색인

발행년도 : 1990년

수록범위 : 1980년부터 1989년까지 10년 동안 주로 대한 신장 학회 회원들이 국내외에 발표한 신장학 분야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기간 외에도 회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전 것도 수록된 것이 있다.

분 류 : MeSH에 의함

색 인 : 저자 색인 - 회원의 업적집의 성격이기 때문인지 인명 색인을 앞에 두고있다.

주제색인 - 저자 색인 뒤에 있으며 MeSH의 Main Heading만을 적용했다.

평 가 : 특징은 한 주제 하에 10여 편 이상의 많은 논문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종설, 증례 보고 및 원저 등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키워드도 비교적 충분히 부여하고 있다. 상례적으로는 주제 색인이 본체가 되고 인명 색인을 보조적으로 채택하는 것이나 여기에서는 반대로 구성되어 있다.

3) 소화기 내시경 논문 색인집

발행처 : 대한 소화기 내시경 학회

서지종류 : 과거서지, 색인

수록범위 : 초판은 1960년부터 1991년까지 소화기 내시경에 관련된 논문을 수록한 색인으로 대상자료는 대한 소화기 내시경 학회지, 대한 소화기 병 학회지, 대한 내과 학회지, 대한 외과 학회지 등 9개 관련 학회지와 의과대학 논문집과 병원 논문집 등에서 해당 논문을 선정하였다. 2년이 지난 1994년에 초판의 오류를 수정하고 초판 이후 2년간의 추가된 논문을 수록하여 제2집을 발행하였다.

분류방법 : 영문의 주제명 순으로 분류되어 배열되고 있으나 주제 명은 어떤 도구를 근거로 하였는지 언급이 없으나 MeSH에 의하여 분류한 것으로 추측된다.

색 인 : ① 키워드 색인
② 저자별 색인

평 가 : 소화기 내시경에 관한 논문을 검색하는 데는 간편하게 편집된 것 같으나 한 논문에 대하여 단 하나만의 키워드를 주고 있어 검색률이 제한되는 결점이 있다.

4) 감염병 논문 색인집

발행처 : 대한 감염학회

서지종류 : 과거 서지, 색인집

발행년도 : 1995년

수록범위 : 1900년부터 1984년까지의 감염병에 관한 것은 1985년에 발행된 전총회의 감염병 관련 문헌 목록을 전채하고 추가하여 1985년부터 1992년 6월까지의 문헌을 학술잡지 45종과 의대잡지 21종 모두 66종을 대상으로 감염병 관련 논문을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분류방법 : 자체적으로 주제명 목록을 작성하여 사용하였으나 이는 MeSH 용어를 근거로 하여 약간의 조정을 거쳐 작성된 듯 하며 서문에서 1~4개의 키워드를 선정하여 색인하였다 하였으나 대개는 1,2개를 주고 있다.

색 인 : ① 주제별 색인어 목록
② 주제별 색인

평 가 : 국내 의학 관련 잡지가 약 200여종이 되고 있으나 감염병과 관련이 있는 잡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66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감염병에 관한 문헌 검색에 편리한 도구가 된다. 이도 역시 키워드를 너무 적게 주고 있어 검색률이 제한될 것이다. 저자 색인이 없는 것이 흠이다.

3. 의학분야 학회지 총 색인

1) 대한 내과 학회지 색인집

발행처 : 대한 내과 학회

발행년도 : 1995년

수록범위 : 1945년 창간호 ~ 1994년 47권 6호의 기사들과 부록과 학회발표 논문을 포함, 약 5,200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류방법 : MeSH

색 인 : ① 주제 색인

② 저자 색인

2) 대한 방사선 학회지 색인집

발행처 : 대한 방사선 학회

발행년도 : 창간호 ~ 1990년, 1995년

수록범위 : 1990년 판 - 1964년 창간호 ~ 1989년 25권, 1,731편

1995년 판 - 1990년 26권 ~ 1993년 31권, 1,093편과 방사선 학회지 외에 방사선학과 유관 주제인 대한 초음파 의학회지 9권 ~ 13권의 178편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

분류방법 : RSNA(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 Index to Imaging Literature를 위하여 개발된 색인어를 이용하였다. 주제어들은 대개 MeSH의 Main Heading에 Subheading을 , 로 조합한 형태이다.

색 인 : 저자별 색인, 주제별 색인, List of Index words

3) 대한 비뇨기과 학회지 총 색인

발행처 : 대한 비뇨기과 학회

발행년도 : 1988년

수록범위 : 1960년 창간호부터 1987. 28권 6호까지 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색인집이다. 2,000여 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류방법 : 권 호별 순으로 논문을 배열하고 논문마다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뒤에서 국문, 영문 주제 색인을 주고 있다. 주제명을 장기와 해부학적 위치를 먼저 기술하고 일반적인 질환은 질환명을 먼저 장기명을 뒤에 넣었다. 종양은 장기명을 먼저 기술하고 조직학적 소견은 뒤에 넣는 방법으로 작성하였다.

색 인 : 논문목록, 주제색인(한글), 주제색인(영문), 저자색인

4) 대한 성형외과 학회지 총 색인 제1집

발행처: 대한 성형외과 학회

발행년도: 1996년

수록범위: 1974년 창간호부터 1995년까지의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 2,000여 편을 대상으로 1985년 초판이 발행되었고 1995년까지를 추가하여 새로 발행하였다.

분류방법: 자체적으로 분류표를 개발하여 이용하였다. 국문의 경우 1. 기초연구, 2. 피부, 연조직..... 11 기구, 감염, 미분류종까지 11개의 주제로 나누고 각 주제에서 다시 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다. 영문 주제명은 국문 주제와는 다르게 각 주제어의 자모순으로 배열되고 있다.

색인: 국문 색인편, 영문 색인편, 인명 색인편

5) 대한 안과 학회 잡지 총 색인

발행처: 대한 안과 학회

발행년도: 1984년

수록범위: 학회지 1958년 창간호부터 1983년 제 24권까지 수록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분류방법: KWIC 방법으로 수동적으로 작성되었다. Stop word를 설정하고 나머지를 키워드로 하여 1개 논문에 대하여 추출된 키워드 수 만큼 중복 기재된다. 양이 많으면 수동으로는 불가능한 방법이다.

색인: 국문 주제 색인, 영문 주제 색인, 국문 저자 색인, 영문 저자 색인

6) 대한 이비인후과 학회지 논문 목록집 제1,2,3집

발행처: 대한 이비인후과 학회

발행년도: 1집 - 1987년 (1958년 ~ 1985년 2,418편)

2집 - 1991년 (1986년 ~ 1990년 1,154편)

3집 - 1995

수록범위: 2집에 이어 1991(34권)년부터 1995(38권)년까지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 912편을 대상으로 3판을 출판하였다.

분류방법: 논문 표제에서 추출한 키워드들을 자모순으로 배열하는 KWIC 색인이다.

색인: 국문 제목, 영문 제목, 국문 성명, 영문 성명 순으로 편집되어 있다. 차라리 국문편, 영문편으로 크게 나누고 그 안에서 주제명과 저자명 색인으로 구분함이 바람직하며 저자명 색인에서도 그 저자의 논문을 전 서지 사항을 모두 기술하고 있어 이중

삼중으로 기술되어 출판 비와 노력이 낭비되고 있다.

본체(main body)에 일련번호를 주어 저자명에 해당 논문 번호를 주면 간단할 것을 필요 없는 노력과 예산이 소비된 결과가 되었다.

7) 대한 정형외과 학회지 찾아 보기(Index) 제1,2,3집

발행처 : 대한 정형외과 학회

발행년도 : 제1집 - 1985년

제2집 - 1992년

제3집 - 1997년

분류방법 : 본체를 저자 색인으로 하고 국문과 영문 주제 색인을 주고 있다. 주제색인은 표제와 저자가 표기한 키워드를 종합하여 자모순으로 배열한 듯 하며 서문에서도 용어들의 통일 문제를 걱정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색인 : 저자 색인, 국문 제목 색인, 영문 제목 색인, 여기에는 영문 저자 색인이 없다. 외국인의 이용을 전제로 영문 제목 색인을 주었다면 저자명도 영문 저자명을 주어야 할 것이다. 대한 이비인후과 논문 목록에서 언급 하였 듯이 영문편, 국문편으로 하여 각각 주제명 색인과 저자명 색인을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 것도 주제 색인을 본체로 하는 일반적인 체제와는 다르다.

8) 대한 흉부외과 학회지 논문 색인집

발행처 : 대한 흉부외과 학회

발행년도 : 1991년

수록범위 : 1968(1권)~1990(23권)까지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통권 53권에 약 1,700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분류 방법 : 학회차원에서 개발한 흉부외과 분야의 전문 분류 표를 쓰고 있다.

1. General considerations (G) (일반적인 개념)
2. Subject about disease entity (D) (흉부외과 질환들)
3. Subject about procedure and operation (P) (절차와 수술)

G 내에서는 GA, GB, GC, GD등으로 분류하고 GA에서는 GA10, GA20, GA30, GA40, GA50 등으로 세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분류표에 대한 검색 효율에 대하여는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색인 : ① 주제별 색인

② 저자별 색인

9) 소아과 총 색인 ; 소아과 주제 및 저자 색인

발행처 : 대한 소아과 학회

발행년도 : 1집 1985년

2집 1988년 소아과 31/5 부록

3집 1991년 소아과 34/4 부록

4집 1959년 소아과

5집 1997년 소아과 40/3 부록

1집에서 4집을 제외하고 학회지인 '소아과' 특정호의 부록으로 색인집을 출판하고 있다.

수록범위 : 소아과에 수록된 논문을 대상으로

1집 - 1958년(1권) ~ 1984년(27권)

2집 - 1985년(28권) ~ 1987년(30권)

3집 - 1988년(31권) ~ 1990년(33권)

4집 - 1991년(34권) ~ 1993년(36권)

5집 - 1994년(37권) ~ 1996년(39권)

분류방법 : 1집은 KWIC 색인으로 표제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그 키워드를 앞에 모아 자모순으로 배열하였다.

2집부터는 MeSH에 의하여 분류하였다.

색 인 : 주제색인, 저자색인

IV. 한국 의학 서지 작성의 문제점

3장에서 국내 의학 서지류를 분석한 결과 문제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1) 현재 국내에서 의학 문헌 검색을 위한 서지류는 주로 외국에 배포되는 Korean Medical Abstracts 1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 2) MeSH에 의하여 분류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 한 것이나 한 기사에 대하여 너무 적은 키워드를 부여 하는 것은 검색률을 저하시킨다. MEDLINE에서 평균 5~15개의 키워드를 부여 하는데 비하여 국내 서지에서는 1, 2개를 부여할 정도이다.

5) 윤봉자, 윤정선, 『MEDINE 검색의 실제』, 서울대 출판부, 1993. P.68.

- 3) MeSH를 이용할 경우 현재의 문헌 양이 적다 하여 Subheading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 커다란 데이터 베이스가 형성 되었을 때에는 검색 범위를 좁히기 위하여 Subheading을 주지 않은 것이 후회될 수 있을 것이다.
- 4) 디소러스 또는 색인어 목록을 이용 했을 경우에 그 근거를 거의 밝히지 않고 있는데 색인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검색 시에도 분류한 용어를 검색어로 사용해야 함으로 그 근거를 반듯이 밝혀야 한다.
- 5) 저자 색인을 생략한 서지는 바람직 하지 못하다.
- 6) 저자명과 표제의 자모순 배열은 개인 업적을 조사하는 의미 외에는 검색 기능이 거의 없다.
- 7) 소 주제별 학회별로 디소러스를 개발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거의 완벽하다는 정평을 받고 있는 MeSH를 외면하고 다시 개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 8) 국내 의학 문헌 양은 타 분야에 비해서는 훨씬 대량이라 할 수 있겠으나 외국에 비하여는 소량이라 할 수 있어 2차 자료의 개발은 경제성이 없어 상업적 생산은 기대하기 어렵다.
- 9) 색인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다.
- 10) 의학문헌 분류에서 의과대학 교과과정에 준하는 큰 분야로 나누어 분류하는 것은 분류한 의의가 거의 없다.
- 11) 국내 의학자들이 영문편을 해독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영문편과 한글편을 이중으로 편찬하는 것은 낭비이다.

V. 제안 및 결론

본 연구 결과 바람직한 색인은 하나도 없는 실정인데다 현재는 서지 작업이 국내에서 외국에 배포하기 위한 KINITI의 Korean Medical Abstracts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이차 자료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하루 속히 서지 봉사가 계속되어야 하겠으나 경제성이 없어 상업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렵고 국가 서지 책임 기관인 국립중앙 도서관이나 한국 의학 도서관 협회 또는 MEDLINE Center등에서 투자하여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 국내 서지 작업의 약 3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더 효율적인 서지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의학서지 작성은 색인·초록에 관한 전문 교육을 받은 의학 전문 사서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하므로 문헌정보학과의 교육은 앞으로 모든 사람의 상식적 도구가 될 컴퓨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주제 전문사서를 양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모든 서지류의 기본적인 형태는 주제 색인에 저자 색인을 보충하는 것이며 주제 색인은 의학에 있어서는 MeSH를 이용함이 권장 할 만 하다 하겠다. 의학 전반을 위해 고안된 MeSH이지만 MEDLINE에서 재편집하는 소 주제별 Recurring Bibliographies들도 MeSH에 의하여 분류하여도 불편이 없음이 현재까지도 입증되고 있는 실정이니 구태여 소 주제별 색인어 목록이나 디소러스를 별도로 개발하는 낭비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국내 의학 문헌이 전에 비하여 대폭 증가하였으나 아직은 기계화한 상업적 서지 유통은 국내에서 상업성이 없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강승식은 그의 논문에서 '자동 색인은 색인 전문가가 색인어를 추출하거나 색인어를 부여하는 수동 색인에 비해 정확도가 낮은 편이다'라고 말하였듯이 자동 색인이 신속하고 인건비를 절약한다는 이점은 있으나 자동 색인이 수동 색인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

국내에서는 문헌 양이 대폭 늘어 날 때까지는 비영리적으로 유관기관에서 인쇄물로 서지류를 계속 생산할 것을 권고한다.

참 고 문 헌

- 강승식, "디지털 문헌정보의 색인 자동화", 디지털 도서관, 99여름호(통권14호), 1999, P.49
김호배, 윤봉자, "국내 의학 문헌 색인의 현황 및 발전 방향", 한국 의학도서관(1998), 25(2), P.71.
국회도서관, 『의학·약학 논문 총 목록』, 1972.
대한 간호협회, 한국 간호 관계 논문 총 목록, I, II, III.
대한 감염병협회, 감염병 논문 색인집, 1995.
대한 내과 학회, 대한 내과 학회지 색인집, 1995.
대한민국 학술원, 學術總覽, 醫學編 I ~ XII, 1981~1991.
대한 방사선 학회, 대한 방사선 학회지 색인집, 1990, 1995.
대한 비뇨기과 학회, 대한 비뇨기과 학회지 총 색인, 1988.
대한 성형외과 학회, 대한 성형외과 학회지 총 색인 제1집, 1996.
대한 소아과 학회, 소아과 주제 및 저자 색인.
대한 소화기 내시경 학회, 소화기 내시경 논문 색인집, 1994.
대한 신장 학회, 신장학 분야 논문집 저자 및 주제 색인, 1990.

6) 강승식, "디지털 문헌정보의 색인 자동화", 디지털 도서관, 99여름호(통권14호), 1999, P.49.

대한 안과 학회, 대한 안과 학회 잡지 총 색인, 1984.

대한 의학 협회, Medical Abstracts Korea.

대한 이비인후과 학회, 대한 이비인후과 학회지 논문 목록집 제1,2,3집.

대한 정형외과 학회, 대한 정형외과 학회지 찾아보기(Index) 제1,2,3집.

대한 흉부외과 학회, 대한 흉부외과 학회지 논문 색인집, 1991.

산업기술 연구원, Korean Medical Abstracts, 1971 ~

윤봉자, 윤정선, 『MEDLINE 검색의 실제』, 서울대 출판부(1993) P.68.

한국 의과학 연구소, Index Medicus Korea, 1973~1975.

한국 의학 도서관 협의회, Koeran Index Medicus, 1984~1994.

Lancaster, F. W., 『Indexing and Abstracting in Theory and Practice』, 장혜란역, 『색인 초록의 이론과 실제』, 구미무역, 1999, P.13.

Medical Library Association, 『Handbook of Medical Library Practice』, 4th ed., vol.3, '1999, P.144.